



김 명 철

『학력사항』

- 부산 금성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법대 졸업

『경력사항』

- 현) 제23대 대구지방 교정청장
- 부산구치소장
- 인천구치소장
- 춘천교도소장
- 홍성교도소장
- 1991년 제35회 행정고등고시 교정직 수석 합격

I. 머리말

누구나 지난 일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고통스런 것 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는, 아니 그 고통마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착각하는 습성을 지닌 것 같다.

나 또한 이런 습성을 지닌 사람으로, 과거의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 진실에 접근해서, 그 진실로부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지만 이 글을 읽으실 분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믿고, 대학 입학 이전과 이후의 생활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 자신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글을 엮어 나가고자 한다.

II. 준비기

1. 대학입학 이전

나는 1936년 1월 추운 겨울날, 부산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남들과 같이 코흘리개 국민학교 시절을 보냈으며, 중학교 시절에는 모형 만들기에 빠져 발명가 내지는 과학자가 될까 하는 꿈도 끈적이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대입 본고사 준비를 위해 영어, 수학, 국어 등에 전념했으나, 다음해(1980) 고등학교 2년 여름 대, 본고사가 폐지되는 교육개혁으로 객관식을 준비해야 하는 혼동을 겪게 되었다.

1981년도에 학력고사가 끝난 후 대입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집 근처에 있는 한 선배님을 찾아

갔는데 마침 그분은 법대에 다니시는 분이였다. 법대를 졸업하더라도 전망 있다는 선배의 유인(?)이 법대에 입학하게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되며, 내 자신 또한 상대 보다는 법대 쪽이 매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법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2. 대학입학 이후

누구나 그러하듯이 내 자신도 약간의 설렘, 기대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불만을 안고 낮설고 자유롭게 여겨지는 효원(부산대학교)의 새벽별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다.

1학년 입학이후 고등학교 동문회에다 써클 생활까지 하다보니 1학년은 정신없이 흘러가게 되었다. 과연 남아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마저 들었다. 그때 생각난 것이 군입대였으며 휴학계를 내고 군입대일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3. 군 생활

1983년 7월 20일(입대일)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진주역에 모인 장정들은 하나 같이 굳어 있었으며, 그날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도 대변하는 듯 부슬부슬 비는 내리고 있었다. 진주역을 출발한 군용열차는 끝없이 북쪽으로 달려갔다. “그래 갈때까지 가봐라.”하는 심정이었다.

훈련 마치고 배치된 곳은 북한 땅이 내려다 보이는 철책이었고, 야간근무는 지난 날의 생활에 대한 반성과 앞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데는 충분했었다. 수색 소대요원으로 D.M.Z내를 활보할 때는 남들이 가보지 못한 땅을 밟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픔도 함께 밟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1985년 겨울 함박눈이 내리던 어느날 “이제 내생의 중세 암흑기는 끝나고 이제 르네상스가

펼쳐지리라.”는 환상을 안고 제대를 하게 되었다.

III. 수험기

1. 복학 전

부산에 도착한 후, 복학 하기전 2월말 고등학교 동문과 함께 지리산 등반을 나서게 되었다. 지리산의 날씨는 부산과 현격한 차이가 났기에 목표인 천왕봉까지 오르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리 둘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천왕봉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을 나아갔다. 법계사를 지난 후 너무나 허기가져서, 눈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다시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가 겨우 정상에 도달했다.

겨울산은 정말 환상적이었으며, 마지막날 보았던 얼어붙은 하동의 불일폭포는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지리산 등반은 흥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었다.

2. 복학 후(1986년)

복학하고 난 후에는 다른 예비역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에 충실했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고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86년 말 동기들과 함께 학봉정(법대 정독실)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학봉정의 생활은 그야말로 군대생활 이상으로 엄격했으며, 지도교수님의 무진장한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법대에는 행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으며, 내 자신도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는데 1차 8과목의 기본서와 문제집의 분량은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의 기를 꺾기에는 손색이 없었다.

3. 1987년도

1987년도는 누구나 기억할 수 있듯이, 나라 전체가 민주화의 열기로 뒤덮였으며 엄격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학풍정도 여기에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창 밖에서 들려오는 구호소리는 보수적이라고 이름난 고시생들마저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는 동안 어김없이 흐르는 것은 세월인가 보다. 어느 정도 시간은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실력은 쌓여가지 않고 합격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난 것이 휴학이었고 휴학해서 한 일년 정도면 1차 시험을 가볍게 합격하고 좀 더 실력을 쌓지 않을까 하는 착오였다. 1987년 2학기과 다음해 한 학기까지 명목상의 가사사정 아닌, 실제상의 개인 사정으로 휴학계를 내었다.

아무런 적(籍)도 없이 오직 자신만의 계획아래 수험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론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면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고통도 따랐다.

4. 충격의 1988년도

국가적으로 볼 때는 올림픽 준비등으로 축제의 분위기였으나. 이 해는 나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의 해였다. 1988년 초여름 그렇게도 인지하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정다감하신 아버님께서 이 세상을 멀리하시게 되었다. 그 충격은 우리 모든 가족에게 오래 갔으며, 특히 어머니의 충격은 더욱 깊었다. 같이 공부해오던 학풍정 실원과 친구들의 위로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가을이 되어서야 다시 공부장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난 휴학 1년은 완전히 목표했던 바를 벗어났고, 다시 힘을 내어 차분히 수험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5. 1989년, 대학 마지막 해

졸업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했다. 여기 저기서 취업에 대한 정보가 오고갔고, 같이 공부하던 동기 중 몇명은 수험생의 길을 벗어나 자기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볼 때 나 자신에게도 알 수 없는 갈등이 닥쳐왔다.

과연 이 길은 언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무한궤도에 올라타지 않았나?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러는 동안 사법시험 1차는 다가왔으며, 행시 중 교정직에도 응시원서를 넣게 되었다.

교정직 1차과목은 사시 1차 과목과 같았고, 도전하면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시 1차가 있는 후 약 한달 후에 행시 1차가 있었는데, 사시 1차 결과에 대한 조바심, 주위의 사정, 그리고 나태함으로 인해, 거의 무대책으로 시험을 보게 되었다.

시험지를 받고보니 그 공백기간 중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엄격했더라면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만 안고 수험장을 나섰다. 사시 1차 발표날, 서울신문을 몇 번이나 쳐다보아도 이름 석자는 끝내 보이지 않았다. 입학에서 이때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으며, 특히 어머니에게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행시 1차도 거의 기대하지 않았으며, 1차 발표날 그 결과도 알아보지 않고 그 다음날 서면에 책을 구입하러 갔는데, 한 서점에 행시 1차 합격자 명단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명단을 살펴보았는데, 서울신문에 내 이름이 있었다. 몇 번을 쳐다보고 확인해 보아도 내 이름이 틀림없었다. 책 구입은 잊은 채 그냥 정신 없이 서면의 혼잡한 길을 걸었다.

그 해 8월 서대문 중학교에서 2차시험을 치렀는데, 무더위 속에서의 수험생들의 긴장된

모습과 투지는 2차시험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었다.

4일간의 열전을 참관(?)하고 난 후 오랫동안 서울에서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기를 만나 그의 하숙집으로 갔는데, 가는 도중 소낙비는 엄청나게 내렸지만 우리들은 그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비를 맞으면서 앞날을 이야기했다.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 수험생활을 시작했다. 그 해는 학부생활을 마무리 짓는 해였는데, 대학원에 진학해서 대학원 공부를 계속하면서 수험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전 생활을 수험생활에 쏟을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길에 섰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어느 한 분야에도 뜻을 이루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한곳이라도 완결짓자.”는 마음으로 대학원 진학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1990년 2월 졸업을 하고 드디어 자발적 실업자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남들은 졸업을 또 하나의 출발이라 하지만, 새로운 출발점이 없이 졸업을 하는 나로서는 앞날에 대한 불안만이 가중되었다.

IV. 1991년 그해

1991년도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자 한 해요, 이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한 해였기에, 어느 해보다도 긴장되었다. “과연 되풀이 되는 이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보이지 않는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해였기에 누구보다도 설레이고 답답한 해였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에는 해당하는 과목이 있으면 거의 참석했는데, 첫 과목으로 치른 행정법은 1, 2점 차이로 과락이었고, 몇 주 후에 있는 형사소송법 모의고사 또한 보기

좋게 과락당했다. 물론 2차 공부한지 몇 달 안 되었지만 이런 점수를 받고 보니 나에게 무슨 하자가 있지않나 하는 의심도 생겼다. “아니다. 수험생은 그날, 그 수험장, 그 시간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모의고사는 그야말로 모의고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합리화로 자신을 위로했다.

태양이 뜨거워 올수록 긴장과 이 생활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소망이 커져만 갔다. 1차 시험결과 발표와 함께 2차시험 장소도 발표났는데, 후배 2명이나 같은 직렬에 합격했다.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효원재(기숙사)에서 방을 같이 사용한 후배가 합격한 사실이었다.

2차시험 3일전 학봉정에서 같이 공부한 선·후배님들의 격려를 받으며, 같은 직렬에 합격한 후배와 같이 서울로 향했다. sub-note와 기본서, 문제집 기타 필요한 모든 것을 배낭에 넣고 여행 아닌 여행을 떠났다.

건국대학교 앞에서 여관을 구하고 후배와 같이 생활했는데, 첫날은 방의 구조를 재배치 하였으며, 스탠드를 설치하여 방을 밝게 하고 난 후 다시 한번 계획표를 작성하여, 가지고 온 책들을 첫날부터 끝나는 날 순으로 배열하여 결전의 날을 기다렸다.

1. 첫째날(8.5.)

그 전날 밤 잠은 오지 않았고, 2시에 잠을 청했으나 누워있는 동안 의식은 맑아지고 육체는 극도로 피로했다.

다시 불을 켜고 책을 보았으나 도저히 볼 수 없어 또 다시 잠을 청하는 반복을 되풀이 하였다.

내일 아니 오늘을 위해 잠을 자야지 할수록 잠은 오지 않았고, 이력저력 시간은 흘러 새벽 5시쯤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 겨우 잠을 이룰 수 있었다.

1시간 반 정도 자고난 후 후배와 같이 아침을 먹고 한양대학교로 향하는 전철을 탔다. 행정법 sub-note한 것도 다 보지 못하였기에 그저 눈으로 훑는 정도로 만족하여야 했다. 첫째 과목인 윤리문제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종합적인 시각

에서 접근하면 쓸 수 있는 문제로 보여 국민 윤리 기본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쓰려고 했으나, 작은 문제 중 첫 번째 문제인 「도덕율과 정치율」에 대해서는 기본서 내에서 언뜻 본 마키아벨리즘, 현 우리 사회에서의 정치에 대한 낮은 신뢰감, 도덕율이 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가 등의 논점이 언뜻 머리를 스쳐갔다. 정확하게 논점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런 논점을 중심으로 답안지를 써 내려 갔다.

오후 행정법 시험은 「행정행위의 특성」이 큰 문제로 출제되었는데, 「행정행위의 특성」의 목차가 생각났기에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작은 문제 중 첫 번째 문제는 쓸만했으나 두 번째 문제는 거의 예상을 벗어났기에 당황했다. 그렇지만 큰 문제는 크게 실수하지 않았다는 위로로 다음 시험을 대비할 수 있었다.

2. 둘째날(8.7.)

행법은 평소에 자신 있는 과목이었으며, 문제도 크게 예상밖의 문제가 아니어서 자신있게 적어내려 갔으나 나중에 점수를 알아본 결과, 생각했던 점수에는 미치지 않았다. 이로써 볼 때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세번째 날(8.8.)

선택과목으로 사회학을 선택하였는데 그런대로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형

사소송법의 경우 교과서 한권에다 문제집 한권으로 거의 모든 문제를 sub-note화 하였는데, 막상 문제를 접해 보니 큰 문제는 논점이 잡히는 것 같은데 작은 문제는 머리속에서 가물가물 거렸다. 겨우 sub-note를 연상해 가며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성적을 알아보니 의외로 점수는 좋았다.

4. 네번째 날(8.9.)

오늘만 지나면 이제 그 길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시험도 막을 내리는 날이라 웬지 기분이 좋았다. 오전 과목인 형사정책은 사법시험 1차 준비때 선택과목으로 하였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제 남은 행형학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행형학 문제를 받아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소리 또한 더욱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작은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한 문제인데 큰 문제는 정말로 의외의 문제였고, sub-note에도 정리가 되지 않은 문제였다. 큰 문제에서 당황하게 되니 작은 문제까지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았다.

일단 작은 문제부터 언급하였는데 큰 문제에서 잃어버릴 점수를 작은 문제에서나마 만회하지는 심정으로 적어 내려갔으며, 큰 문제도 나름대로 주제와 관련시켜 가면서 정신없이 적어 내려갔다. 행형학은 과락을 걱정했는데 나중에 점수를 알아보니 가장 높은 점수였다. 시험은 상대적이며 수험생 자신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더 느끼게 된 셈이 되었다.

모든 시험이 끝나고 나니, 몸은 지쳐 있었으나 마음만은 한없이 편했다. 내일 시험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로도 나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마중 나온 후배와 서

울에서 근무하는 동기와 함께 격려주를 나누고 그 동안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5. 발표를 기다리며

부산에 도착하니 정말 할일을 잃어버렸으며, 하루하루를 실업자 아닌 실업자로 보내야 했다. 그 사이 직장시험도 쳐 보았으나 기업체의 시험도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만 얻었다.

발표 전날 법대 대학원에 다니는 동기가 논문 작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집에 있으면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무언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논문작성에 도움(방해?)을 주고자 집을 나와 학교로 갔다. 보통 시험 발표일 전날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관례상,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전화 한통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미대대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함께 하숙집에 있으면서 다른 동기의 연락만을 기다렸다. 6시쯤이면 모든 것이 결판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6시가 지나도 동기로부터 연락이 없어 “이제는 끝났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명하니 하숙집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8시쯤 되어서 동기들과 선배가 찾아왔다. 들어 오면서 하는 말이 “너 수험번호가 몇 번이냐?” 등 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제 한 가닥 기대마저 꺼져 버렸다. 그때 한 동기가 “이제 그만 할까! 너 합격이더라.”라고 했다. ‘합격!’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도 반신반의 했으며 몇 번이고 확인한 다음에야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다. 구천을 헤메이다가 겨우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었고, 그제서야 마음속에 생각해 왔던 「EXODUS 91」이 이루어 지는가 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3차시험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으며, 혹시나 잘못되지 않나하는 생각은 최종 발표일까지 갔다.

최종 합격이 되어서야 완전히 기뻐할 수 있었다. 합격 발표 며칠 후 아침 전화벨이 울려 받아보니 考試界에서 직렬별 수석합격자 좌담회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합격한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수석이라니 정말 나의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V. 주관적 방법론

어떤 수험생이든지 이때까지 공부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는 것은 자기자신의 방법에 큰 하자가 없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타인의 장점을 수정 도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때까지 수년간 익혀온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타 방법을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혼란만 초래될 것이다.

이하에서 말하는 방법론은 하나의 참고용으로 생각하고 현명한 취사선택이 있길 바란다.

1. 계획의 수립

수험도서만 쌓아 놓았도 그 분량에 압도되기 쉬운 면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넓은 용지에 각 과목별 특성, 그 과목을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 하루 몇 과목씩 할 것인가 등을 적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공부시간의 단위를 1주일로 하였는데, 하루 이틀을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 벅찬것 같고, 한 달씩 정한다면 너무 느슨해질 것 같아 일주일로 정하였다.

모든 계획의 100%완성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고, 60%~70%라도 달성된다면 만족하였으며, 계획대로 안되더라도 무리하게 달성하려 하지 않고 수정계획을 세워 목표에 근접하고자 노력하였다.

2. 마음의 평정

수험생에게는 마음의 평온한 상태 유지가 필요하리라 본다. 억지로 무리하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 가벼운 맨손 체조도 하고(때로는 컵차기), 이야기도 나누어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신경을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타인과 심리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는 편이었다.

3. 자신에 대한 반성문 내지 결의문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안풀릴때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문(결의문)을 적어 보니 한결 마음이 안정되었다. 잠시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결의문

- 이제 6월이다. 6월이 되었다고 하여 해가 두번 떠오르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있다. 나의 마음이다. 모든 생각은 집중되고, 생의 활력은 끊임없이 나의 몸을 감쌀 것이며,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가리라.
 - 모든 것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 넓게 생각하자. 마음이 좁으면 좁은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넓은 마음으로 보면 세계는 더 크고 아름답게 보이리라.
 -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계획이 이루어 지리라는 생각이다.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몇 달 남지 않는 기간 중에 다음 사항은 반드시 지키리라.
- 흥분하지 말라.
 - 남을 의식하지 말라.
 - 건강을 생각 하라.

- 항상 반성하라.
- 하루는 인생이다.

4. 기타

공부장소는 법대 학봉정에서 주로 하였으며, 효원재(기숙사)가 생긴 이후 여기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였기에 집에서 출퇴근하는 시달림은 없었고 모두 수험생들로 구성되었기에 서로가 힘이 되었다.

그리고 책 사는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 복사하거나 빌려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충분한 책이 있음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교정직의 경우 2차과목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행형학 등이 있어 타 직렬과 비교하여 볼 때 특이한데, 법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평소에 중요한 법조문은 외워 두는 것이 시험 치는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형사정책이나 행형학의 경우 기본서가 한정되어 있기에 몇 번 읽고 난 후 간단히 sub-note하는 편이 나올 것 같다.

VI. 맺으면서

내가 합격하기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졸업하고 난 후에도 끝까지 돌보아 주신 어머님과 형님, 멀리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는 누님과 자형, 그리고 친척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때 친어버이 같이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학봉정 지도교수님과 법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같이 공부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신 학봉정 동료 여러분과 보다 진보되고 성숙된 자리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